

# 강진군, 영남권 산불피해 복구에 온정의 손길 전하다

## 의성군 피해농가 찾아 자원봉사 활동, 함께 돕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

강진군은 2025년 5월 16일(금)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복구 활동을 전개하며, 재난 속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주관 아래 강진군, 보성군, 광양시가 함께 참여한 합동지원이다. 이 중 강진군은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해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온기 나눔 물품을 전달하고, 농가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단은 오전 4시 10분 강진군 정에서 정결례 보성군 경유 후, 버스를 타고 경북 의성으로 이동했다. 약 5시간에 걸친 장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다.

현장 도착 후 오전 9시부터 인원 점검 및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오전에는 피해 물품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물품을 전달했으며, 오후에는 실제 농작물 심기와 같은 복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은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강진군이 가진 지역 간 연대와 이웃사랑의 실천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강진, 보성, 광양 3개 시군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이동하며 지역 간 협력의 상징을 이루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멈추지 않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강진군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먼저 달려가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이번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향후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원봉사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국 어디든 필요한 현장에 강진의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복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 그리고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 의미가 있었다.

강진/손경설 기자

# 전남 학생들, 베트남·일본서 교육·교류활동 펼치다

## 전남교육청, '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국외 활동 성료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김찬중)은 '2025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국외 활동팀' 8개 팀을 선정해, 지난 5월 전남 중·고등학교 100여 명이 베트남과 일본 현지에서 교육·문화 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글로벌 교류 활동으로,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이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과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사전 캠프와 실행계획 발표 등을 거쳐 우수 팀이 국외 교류 활동 기회를 얻게 된다.

베트남 활동팀은 호치민한국교육원과 협력해 견타시 짜우바리엣고등학교를 방

문했다. 학생들은 태권도와 K-팝 공연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 학생들과 전통 공연, 밴드 연주, 아리랑 합창을 함께 하며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한글 이름 쓰기, 전통놀이 체험부스도 운영해 자연스러운 상호이해의 기회를 마련했다. 견타시 의무청, 교육청, 한국어 채택학교 교장단, 한-베 교류단체도 함께 자리해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했다.

일본 활동팀은 역사, 공예, 과학, 동물복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팀별 주제에 따라 탐방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관계 관련 유적지, 전통문화 공방, 과학 기술 현장 및 동물복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지 전문가와의 소통도 진행 중이다.



모든 활동은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을 실천 속에서 길러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학생들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적극 홍보하며 전남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도 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이야말로 전남이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K-에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탁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가 군민과 단체로부터 장학금 약 5,300만 원을 기탁받았다.

4·5월에는 ▲(주)삼성컨트롤밸브(대표 차창호) 200만 원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식 100만 원 ▲진도농업협동조합 3,000만 원 ▲임희면체육회 100만 원 ▲지산면체육회 100만 원 ▲군내면체육회 100만 원 ▲진도읍체육회 100만 원 ▲의신면체육회 100만 원 ▲고군면체육회 100만 원 ▲진도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이재만) 1,000만 원 ▲고군면어촌계장협의회 200만 원 ▲여지수산(대표 박재천)이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자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진도의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지역 내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4·5월에는 특히, 화합의 대추제인 각 읍면 한마당잔치를 통해 읍·면 체육회



와 관련 단체에서 기탁에 동참해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탁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진도/오재명 기자



# 함평군 함평읍, 민·관·경 협약 체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민간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22일 "함평읍과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소장 정재명),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행구)가 지난 2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사업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뜻을 모으고 지역 내 위기가정 문제를 민·관이 공동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읍내파출소는 범죄 출소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 상해 위험도가 높은 가구 방문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행하고 위기가구 발견 시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해 신속한 복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한 경찰 업무 수행 중 발견된 위기가정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행구 민간위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함평읍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명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장은 "업무 중 어려운 이웃을 발견 시 바로 정보를 공유해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찾아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역 복지 증진으로 관계 기관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 순천시 왕조2동 의용소방대, 생활안전물품 지원

순천시 왕조2동 의용소방대가 지난 20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40가구에 생활안전물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용소방대원 8명은 화재 예방 소화기(6대), 감지 경보기(6대), 문개방손잡이(5개), 문 말발굽(5개), 미끄럼방지매트(19개)를 준비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설치·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순천시 119생활안전순찰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서비스 사업의 일환

으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왕조2동 의용소방대(대장 조연민)는 "작은 물품이지만 안전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망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미자 왕조2동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에 늘 앞장서 주시는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경성인 기자



#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